

K리그와 함께한 생명나눔 캠페인 10주년, 보건복지부 제2차관·기증자 유가족 시축

- ‘생명나눔 주간’ 마지막 날, K리그 통해 생명나눔 가치 전파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9회 「생명나눔 주간*(9월 14일~20일)」 마지막 날인 9월 20일(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에서 생명나눔과 K리그 협력 10주년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생명나눔 주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8년부터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

이날 행사에는 생명나눔 홍보부스 운영과 시축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인천유나이티드 산하 유소년팀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고(故) 진호승*님의 유가족이 함께 시축자로 참여해 생명나눔의 가치와 그 뜻을 이어가는 의미를 더했다.

* 2022년 뇌사상태 후 7명에게 장기기증

특히 올해는 생명나눔과 K리그가 함께 장기·인체조직기증을 알리기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축구를 매개로 국민들에게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려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았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간단한 게임이벤트와 함께 올해 생명나눔 공익광고에 출연한 홍보모델 김민지* 선수도 부스를 찾아 캠페인의 활력을 더했다.

* 육상 국가대표(허들 및 400M)이자 솔로지옥5, 골대녀 등 출연 인플루언서

이형훈 제2차관은 “생명나눔은 누군가의 소중한 결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실천이다”라며, “생명나눔의 뜻을 이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K리그와 함께 생명나눔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K리그와 함께 지난 10년간 경기장 내 홍보뿐 아니라 K리그1·2 구단 선수와 감독 등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K리그 축구팬들에게 생명나눔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생명나눔-k리그 캠페인 포스터

담당 부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지 (02-2628-3610)
		담당자	사무관	전미정 (02-2628-3691)
			주무관	김태균 (02-2628-3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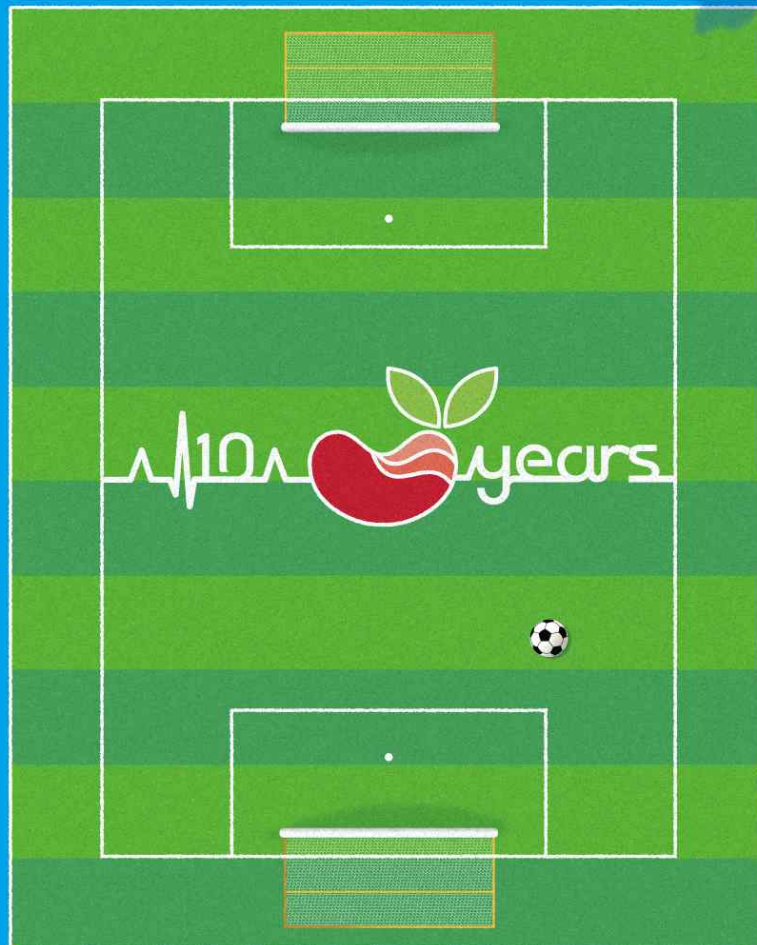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희망의씨앗

2026 생명나눔 X K리그 캠페인

10년의 동행,
K리그가 생명나눔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결심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해 주세요.